

IT Insight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놀라운 삶의 변화

Writer 이관호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채널사업본부 상무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 내는 변화

핀테크 회사에 다니는 재무팀장 A씨는 아침 출근 후 외근을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회사 차량인 전기 자동차의 문을 열고, 수년 전 입사 시 등록한 본인의 지문 인증을 통해 시동을 건다. 회사 공유차량의 사용시간,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는 사전 예약과 동시에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사용시간 및 사용자 변경 등의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¹⁾

A씨는 전기차량으로 이동 중 전기충전 알람을 듣고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깝고 저렴한 충전소를 추천 받았다. 위치는 사무실 근처의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에서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급속충전소다. A씨는 충전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충전량 20kWh가 제대로 충전됐는지 확인만 하면, 신용카드회사의 승인, 결제 도움 없이 공유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직접 부녀회로 지불된다.²⁾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와 일정을 확인하니 베

트남 협력사의 용역개발 대금 지불을 위한 해외송금 업무와 내일 개최하는 팀 내 사회봉사 활동인 야외 바자회 관련 미팅,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인 자녀의 돌 선물 준비가 남아 있다.

해외송금은 수수료 부담 및 송금 완료까지 며칠이 소요돼 협력사로부터 불만이 많은 업무였다. 베트남에 있는 협력사 용역개발 대금은 미화 5만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소액인 관계로 해외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완료까지 수일이 걸리는 기존 해외송금 SWIFT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반기부터 10만 달러 미만 해외송금 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리플 해외 송금망을 통해 매우 적은 송금 수수료에 몇 분 내로 베트남까지 해외송금을 완료한다.³⁾

야외 바자회의 경우 번번히 비로 인해 운영 손실이 많았다. 이번 바자회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주거래 보험회사에서 최근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해 출시한 매개변수 보험인 날씨 보험에 가입해 강수량 5mm 이상 시

보험약관에서 지정 금액을 보상받기로 한다.⁴⁾

지인 자녀의 돌잔치에는 돌 반지 등을 선물하곤 하지만 매번 주위 금 판매점을 찾아다니며 구입·전달하는 것이 불편했다. 다양한 금 상품을 취급하는 A은행에서 최근 금 선물 상품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현금과 같이 자산가치 있는 금을 블록체인에 디지털 자산으로 등록해 놓았다. A씨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는 A은행 금융상품 중 금의 일부인 2g를 지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십 초 만에 보낸다. 지인은 이렇게 받은 가상 공간에서의 금을 A은행에서 현물의 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단위의 디지털 금을 선물할 수 있다.⁵⁾

1) 참조: <https://slock.it/>
2) 참조: <http://www.etnews.com/20170629000305>
3) 참조: <https://ripple.com/>
4) 참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61031123549&type=det&re=1
5) 참조: <http://www.reuters.com/article/us-blockchain-gold-idUSKBN17D2RN>